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 도 자 료		 PyeongChang 2018™	 PyeongChang 2018™ PARALYMPIC GAMES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	
배포일시	2018.1.8 (월)	담 당 자	Tammy Chung 323-936-3015	

ARI Project 라틴음악과 국악의 조우<The Seoul of LA> 공연



-
- ▶ 공연명 : 공연작품 공모전 「2017 ARI Project」
라틴음악과 국악의 조우 “The Seoul of LA”
 - ▶ 일시 : 2018. 1. 19(금) 19:30
 - ▶ 장소 : LA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
 - ▶ 주최 : LA한국문화원, 라틴 포크 앙상블 "Cuñao"
 - ▶ 온라인 예약 : www.kccla.org
 - ▶ 첨부자료 : 공연 포스터 및 사진자료 등 각 1부
 - ▶ 공연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5 공연담당 Tammy Chung
-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공연작품 공모전 「ARI Project」 2018년 첫번째 무대로 라틴 포크 앙상블 쿠냐오 (공동대표 Severin Behnen/Julio Montero)와 함께 라틴음악과 국악의 조우 <The Seoul of LA> 공연을 1. 19(금) 19:30 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개최한다.

<The Seoul of LA>라는 주제를 담은 이번 공연은 LA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섯명의 라틴 포크 앙상블 쿠냐오 밴드 멤버들과 한국에서 활동중인 거문고 연주자 허익수와 장고 연주자 이석종이 초청되어 한 무대에 모여 만드는 공연이다. 재즈 음악을 통해 거문고의 깊은 멋과 음악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거문고가 현대와 전통음악을 넘나들수 있는 다재다능한 국악기로 인식되고, 거문고를 세계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한국전통의 깊은 감동을 전해줄 예정이다.

또한, 거문고, 피아노 및 장구로 완성된 재즈음악을 LA한인커뮤니티와 다문화 관객들에게 선보여, 거문고와 장구의 깊은 멋과 음악적 가치를 통해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Latin Folk Group Cuñao의 특별공연으로 관객들의 흥을 한창 돋구어 줄것이다.

공연에서 협연하는 거문고 연주자 허익수는 새로운 연주 기법을 선보이면서도 전통음악의 음빛깔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립국악단 수석단원으로, 정기적으로 전통음악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작품을 해마다 발표하고 있다. 국악계 창작음악의 예술적 가치를 한국 전통문화와 맞닿아 있게 하고 싶어하는 그는, 작곡가와의 작업과정에서 연주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전통예술의 특징을 작곡가와 긴밀하게 교감해 나가며 그가 생각하는 한국전통문화예술의 특징을 창작음악의 그릇에 담고 있다.

장고 연주자 이석종은 한국음악과 무용에서 주로 반주악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악기 '장고'에 새로운 주법과 리듬 등을 통해 솔로악기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타악 연주자이다. 한국 전통의 풍물 장단을 비롯해 경기도당굿 장단과 동해안 별신굿 장단, 또한 장고로 표현될 수 있는 다양한 음색 등으로 새로이 구성한 곡들을 통해 정기적인 연주회를 발표하고 있다. 그의 작업은 기존의 전통 장단들에 대한 재해석이며, 새로운 장고 연주곡의 발견이다.

이번 공연을 기획한 Dr. Severin 음악감독은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이번 공연으로 거문고와 아코디언,

장고와 봉고로 연주하는 전통음악과 현지 음악인들과의 다양한 음악적 교류를 통해 우리 전통음악이 단순히 국가적 경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세계에 존재하는 타 장르와 함께 어울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낙중 문화원장은 “음악이라는 장르로 세계와 소통하는 젊은 다민족 음악인들의 열정의 무대에 함께하셔서 부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공연의 관람 및 참가는 무료이며, 사전에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

**공연작품 공모전 <ARI Project>는 공모를 통해 공연단이 LA현지 관객을 대상으로 우수한 공연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LA한국문화원 대표 공연프로그램이다.*

라틴음악과 국악의 조우 "The Seoul of LA" (프로그램)

1. 허익수류 거문고 산조 - 거문고:허익수 / 장구: 이석종

산조는 주로 전라남도 판소리의 시나위가락을 장단(長短)이라는 한국고유의 리듬위에 얹어서 연주하는 기악독주 음악으로 거문고산조는 1896 년(고종 33)에 당시 20 세였던 백낙준(白樂俊)이 처음으로 연주했다. 백낙준이 거문고산조를 만들 당시는 아직 계급사회였다, 봉건사상에 젖어 있는 양반층이 이른바 백악지장(百樂之丈)인 거문고로 당시 민간음악인 판소리를 거문고로 연주한다는 이유로, 천민인 백낙준을 죽이려고까지 하였다. 또한, 상류층이 즐기던 정악이라는 음악장르에 눌러, 초기에는 빛을 보지 못하다가 개화의 물결을 타고 점차 음악적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현재, 산조는 한국 전통음악의 대표적인 기악음악장르가 되었다.

2. 장구 독주곡 ‘모리’ - 구성: 이석종

자진모리와 굿거리의 박자 구성인 12/8 박자와 휘모리 4/4 박자에서 장구의 장단과 리듬 변화 음색 변화 등을 통해 전통적인 기법에서의 호흡과 더불어 장구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독주곡이다.

3. 허익수 & Severin 듀엣 콜라보 연주

4. 허익수, 이석종 & Severin 트리오 콜라보 연주

5. 허익수, 이석종 & Cuñao 콜라보 연주

The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Dr. Severin Behnen

작곡가이자 재즈피아니스트인 Dr. Severin Behnen은 클래식, 재즈, 중동음악, 브라질 음악 등 여러 장르에서 활발한 작곡활동을 펼치고 있다. UCLA음대에서 음악박사학위를 받은 작곡가이자 여러 악기를 다루는 연주자이기도 하다. 그는 피아노, 기타, 아코디온 연주 외에도 우리 전통악기인 거문고에 매료되어 거문고를 위한 다양한 곡도 작곡했다.

Latin Folk Ensemble "Cuñao"

"Cuñao"는 LA에서 활동하고 있는 6인 멤버 Latin Folk 음악 그룹으로, 각 멤버의 다양한 음악적 배경을 바탕으로 새로운 장르의 라틴음악을 만들어 엘에이, 뉴욕과 필라델피아에서 공연하고 있다.

허익수/Heo Ik-soo

국립국악고 졸업

서울대 음대 국악과 및 동 대학원 석 박사 졸업

난계 국악콩쿨 대통령상 수상

15회 거문고 독주회 및 다수 연주 협연

현) 경기도립국악단 수석단원

현) 서울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수원대 겸임교수

이석종/Lee Suk-jong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국악학과 박사과정

98'전주대사습 농악부문 장원

국립 국악원 '2014 공감 젊은 국악<이석종 장고 독주회>'등 4회 독주회 및 다수 협연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5호 판소리 고법 이수자

현) 경기도립 국악단 부수석 단원

현) 용인대학교 국악학과 강사 /끝/